

WEBVTT

00:00:11.882 --> 00:00:14.732

이번 시간에는 서평요리.

00:00:14.757 --> 00:00:18.521

그러니까 책을 읽고  
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?

00:00:18.546 --> 00:00:23.204

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 
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24.474 --> 00:00:27.907

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

00:00:27.932 --> 00:00:30.228

예를 들면 서평이나  
독후감이라고 하죠.

00:00:30.253 --> 00:00:32.748

이런 걸 하나의 요리로  
비유하는데요.

00:00:32.773 --> 00:00:35.463

요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?  
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.

00:00:35.488 --> 00:00:38.598

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 
어떻게 하게 되면

00:00:38.623 --> 00:00:42.884

하나의 서평요리가 완성되는지  
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

00:00:43.142 --> 00:00:46.475

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 
시작하기 전에

00:00:46.500 --> 00:00:49.804

뭔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.

00:00:49.829 --> 00:00:54.888

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책을 읽고  
뭔가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?

00:00:54.913 --> 00:00:59.525

지금 얘기한 대로 서평이나  
독후감이나 혹은 독후감상문, 감상문

00:00:59.550 --> 00:01:01.269

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?

00:01:01.294 --> 00:01:02.695

그런데요.

00:01:03.859 --> 00:01:08.700

이 용어들이 과연 올바른지  
용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

00:01:08.725 --> 00:01:11.178

책을 읽고 뭔가 하는 행위에  
맞는 건지에 대해서

00:01:11.203 --> 00:01:13.499

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 
있을 것 같아요.

00:01:13.975 --> 00:01:18.020

예를 들면 서평은 어떤 뜻이에요?

00:01:18.142 --> 00:01:20.381

책을 평가하는 행위잖아요.

00:01:20.445 --> 00:01:24.749

그런데 일반 사람이 책을 평가하기가  
좀 어려울 것 같아요.

00:01:25.406 --> 00:01:28.627

그러니까 책을 평가하려면  
그 책에 대해서

00:01:28.652 --> 00:01:32.061

잘 알고 책을 많이 읽고  
또 작가에 대해서 알고

00:01:32.086 --> 00:01:35.882

또 비판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가  
안목이 있어야만

00:01:35.907 --> 00:01:38.234

책을 제대로  
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1:38.998 --> 00:01:42.658

그런데 일반사람들이  
어떠한 책을 읽고 쓰는 행위를

00:01:42.683 --> 00:01:45.438

서평이라고 하니까  
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

00:01:45.463 --> 00:01:46.956

이렇게 보고 있어요.

00:01:47.938 --> 00:01:51.847

다른 식으로 보면  
독후감이 있잖아요.

00:01:51.872 --> 00:01:58.097

그런데 독후감은 말 그대로 하면  
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의견,

00:01:58.356 --> 00:02:01.123

느낌 이런 걸 쓰는 행위잖아요.

00:02:01.148 --> 00:02:03.603

그런데 소감을 쓰는 것은

00:02:03.628 --> 00:02:07.576

사실 우리가 소감을 잘 쓰면  
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

00:02:07.601 --> 00:02:09.471  
또 소감을 잘 써야 하지만

00:02:09.496 --> 00:02:13.519  
글을 못 쓰는 사람은 소감 쓰는 일도  
좀 어려운 일에 속한다,

00:02:13.544 --> 00:02:15.186  
이런 생각이 들어요.

00:02:15.937 --> 00:02:17.748  
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

00:02:17.773 --> 00:02:23.908  
뭐냐 하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

00:02:24.697 --> 00:02:27.718  
비둘기 발을 많이 그리라고 해서  
그것만 그렸대요.

00:02:28.063 --> 00:02:31.179  
그런데 그걸 그리다 보니까  
다른 거까지 잘 그리게 됐다고

00:02:31.204 --> 00:02:32.269  
얘기를 해요.

00:02:32.294 --> 00:02:34.508  
그러면서 나중에는  
뭐라고 얘기하냐 하면

00:02:34.533 --> 00:02:37.177  
내가 보이는 걸 그리다 보니까  
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게 되었다,

00:02:37.202 --> 00:02:38.583  
이런 얘기를 해요.

00:02:38.786 --> 00:02:43.993  
마찬가지로 글쓰기에 있어서도  
사실을 일단 표현하는 것은

00:02:44.208 --> 00:02:48.489  
웬만한 연습을 하면 쉽게  
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.

00:02:48.514 --> 00:02:50.582  
그런데 소감이나 의견, 느낌

00:02:50.607 --> 00:02:54.580  
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 
내 안에 있기 때문에

00:02:54.605 --> 00:02:58.370  
이걸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 
저는 느껴지거든요.

00:02:58.395 --> 00:03:02.465

그래서 독후감, 책을 읽고  
내 느낌과 소감을 쓴다.

00:03:02.490 --> 00:03:04.484

이제 글을 또 좀 쓰기  
어려운 사람한테는

00:03:04.509 --> 00:03:06.617

굉장히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.

00:03:06.999 --> 00:03:13.025

그래서 책을 읽고 뭔가 쓰는 행위를  
독후감이나 서평이라고 하는데

00:03:13.050 --> 00:03:19.146

그 용어가 책을 읽고 뭔가 글을 쓰는  
행위를 방해하지 않나

00:03:19.171 --> 00:03:20.989

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

00:03:21.255 --> 00:03:24.174

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용어가  
필요하지 않을까

00:03:24.199 --> 00:03:25.719

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

00:03:27.053 --> 00:03:32.681

예를 들면 독후문, 이렇게 하면  
책을 읽고 뭔가 글을 쓴다.

00:03:32.706 --> 00:03:34.285

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.

00:03:34.310 --> 00:03:38.650

그러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 
때로는 책을 평가할 수도 있고

00:03:38.675 --> 00:03:40.406

또 책에 대한 느낌을 쓸 수도 있고

00:03:40.431 --> 00:03:44.355

또 책 속의 어떤 이야기를  
끄집어내서

00:03:44.380 --> 00:03:46.765

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 생각을  
쓸 수도 있고요.

00:03:46.790 --> 00:03:48.534

여러 가지 방식이  
있을 수도 있거든요.

00:03:48.559 --> 00:03:52.938

제가 그런 방식을 한번  
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

00:03:54.772 --> 00:03:57.105

이 서평 쓰기 관련해서  
제가 어떤 학부로부터

00:03:57.130 --> 00:03:58.345  
상담받은 게 있는데요.

00:03:58.370 --> 00:03:59.595  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3:59.787 --> 00:04:04.221  
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책을 읽고  
글을 쓰라고 했더니

00:04:04.246 --> 00:04:07.562  
예를 들면 홍길동전이나 위인전  
이런 거였는데요.

00:04:07.587 --> 00:04:09.367  
홍길동은 대단하다.

00:04:10.334 --> 00:04:12.442  
용감하게 악당을 물리쳤다.

00:04:12.467 --> 00:04:17.938  
참 용감하다.  
나도 커서 의적이 돼야겠다.

00:04:17.963 --> 00:04:22.155  
이런 식의 글을 썼대요.

00:04:22.180 --> 00:04:26.364  
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 
너무 짧다는 거예요.

00:04:26.942 --> 00:04:30.014  
그런데 글은 사실 일정한  
분량이 돼야만

00:04:30.039 --> 00:04:33.281  
하나의 좋은 형식이 되고

00:04:33.306 --> 00:04:34.920  
그것이 또 내용으로  
되는 거 아니겠어요?

00:04:34.945 --> 00:04:38.244  
분량도 중요한 형식 중의 하나인데요.

00:04:38.571 --> 00:04:42.410  
이렇게 쓰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 
글쓰기를 가르치냐는 말이에요,

00:04:42.435 --> 00:04:44.057  
이 서평 쓰기를 하는 데.

00:04:44.082 --> 00:04:48.353  
그래서 뭔가 분량을 늘려야 할  
필요가 있고

00:04:48.378 --> 00:04:51.878  
뭔가를 더 넣어서 하나의  
서평요리를 완성해야 하는데

00:04:51.903 --> 00:04:53.221  
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.

00:04:53.246 --> 00:04:59.342  
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 
글의 2단계 구조로 보면 뭐였어요?

00:04:59.367 --> 00:05:02.338  
내용하고 소감하고  
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

00:05:02.363 --> 00:05:03.787  
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?

00:05:03.812 --> 00:05:04.928  
책이란 말이에요.

00:05:04.953 --> 00:05:09.491  
책을 읽고 글을 썼으니까  
내용은 책이잖아요.

00:05:09.516 --> 00:05:15.384  
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줄거리나  
책에 대한 내용을 잘 갖다 놓고

00:05:15.409 --> 00:05:17.388  
그다음에 소감을 써야 할 것 같아요.

00:05:17.413 --> 00:05:21.951  
그러면 내용 플러스 소감 형태의  
어떤 글의 구조가 갖춰진다고

00:05:21.976 --> 00:05:23.516  
저는 보고 있어요.

00:05:23.794 --> 00:05:26.969  
그런데 이 서평에서는  
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

00:05:26.994 --> 00:05:28.752  
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

00:05:28.777 --> 00:05:33.581  
저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 
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

00:05:33.606 --> 00:05:35.406  
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내놨어요.

00:05:35.431 --> 00:05:39.255  
그 이론이 뭐냐 하면 제가 쓴  
글쓰기훈련소라는 책에 나오는

00:05:39.280 --> 00:05:41.297  
포인트 글쓰기라는 거예요.

00:05:41.322 --> 00:05:47.160  
그래서 POINT, 이 포인트가  
글의 구조를 형성하고

00:05:47.185 --> 00:05:50.685

또 포인트 자체가 글의 내용이 된다,  
이렇게 얘기를 해요.

00:05:50.710 --> 00:05:54.210  
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 
포인트를 잘 파악해야 하잖아요.

00:05:54.235 --> 00:05:58.209  
글감, 그러니까 어떠한 핵심  
그걸 잘 파악해야 하고

00:05:58.234 --> 00:06:01.734  
또 핵심이 있는 글을 써야 하고  
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하고.

00:06:01.759 --> 00:06:03.936  
그런데 이 포인트는 POINT

00:06:03.961 --> 00:06:07.461  
이 자체가 하나의 글의 구조를  
형성한다는 말이에요.

00:06:07.486 --> 00:06:12.130  
그래서 그중에 IOT만  
한번 생각해 볼게요.

00:06:12.155 --> 00:06:19.544  
저는 서평을 쓸 때 배경과 내용과  
소감이라는 3단계로 구분해서 쓰면

00:06:19.569 --> 00:06:21.178  
쉽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

00:06:21.325 --> 00:06:23.546  
배경은 뭐냐 하면  
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.

00:06:23.571 --> 00:06:30.426  
그래서 일단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 
그다음에 내용은 아웃라인, 개요다.

00:06:30.592 --> 00:06:34.937  
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된다면  
책의 개요를 가져다 봐야 하잖아요.

00:06:34.962 --> 00:06:37.237  
그러니까 아웃라인이다,  
이게 내용이다.

00:06:37.262 --> 00:06:38.382  
이렇게 얘기하고요.

00:06:38.407 --> 00:06:39.841  
그다음에 소감.

00:06:40.434 --> 00:06:43.566  
그 책을 읽고 난 여러분의  
생각을 쓰는 것이 소감이다.

00:06:43.591 --> 00:06:46.927  
그래서 배경과 내용과 소감으로

분류하는데

00:06:46.952 --> 00:06:50.267

그러면 어떤 것이 배경이나?

00:06:50.292 --> 00:06:54.315

배경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 
작가가 누구이고

00:06:54.340 --> 00:06:59.580

그다음에 이게 언제 때 쓰여진 거고  
그다음에 이 책은 어떤 내용이다.

00:06:59.605 --> 00:07:01.196

간단한 책 소개.

00:07:01.590 --> 00:07:06.970

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 
양숙인 두 집안 남녀의

00:07:06.995 --> 00:07:08.934

슬픈 사랑 이야기다.

00:07:08.959 --> 00:07:13.155

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 
그다음에 작품 안내,

00:07:13.180 --> 00:07:17.004

작품을 둘러싼 정보들  
이런 것들을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

00:07:17.029 --> 00:07:21.507

내용은 진짜 아웃라인,  
줄거리 자체고요.

00:07:21.532 --> 00:07:24.465

그다음에 소감은 내 생각이나  
느낌을 표현한 거다.

00:07:24.490 --> 00:07:26.350

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.

00:07:26.375 --> 00:07:28.966

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요.

00:07:30.055 --> 00:07:32.736

다시 얘기하지만 이 책은 누가 썼고  
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.

00:07:32.761 --> 00:07:34.184

이렇게 간단한 책 소개.

00:07:34.381 --> 00:07:38.381

그다음에 이 책은 내용을  
전체적으로 요약하면

00:07:38.406 --> 00:07:40.504

이렇게 됩시다 하고  
줄거리를 보여주는 것.

00:07:40.529 --> 00:07:42.409

그다음에 그에 대한 소감을 쓰는 것.

00:07:42.686 --> 00:07:45.591  
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의 소지를  
없애기 위해서 얘기하자면

00:07:45.616 --> 00:07:49.116  
지금 우리가 서평요리,  
서평 쓰기를 강의하고 있는데

00:07:49.141 --> 00:07:53.582  
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평이라는  
말 자체가 책을 평가한다고 해서

00:07:53.607 --> 00:07:55.268  
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

00:07:55.293 --> 00:07:58.113  
그래도 우리가 책을 읽고  
뭔가 쓰는 행위를

00:07:58.138 --> 00:08:00.432  
그냥 서평이라는 말이  
가장 보편적이니까

00:08:00.457 --> 00:08:01.982  
그냥 서평이라고 했다는 점,

00:08:02.007 --> 00:08:06.330  
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 
들으시면 좋겠습니다.

00:08:06.852 --> 00:08:09.958  
그래서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 
줄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

00:08:09.983 --> 00:08:10.968  
저는 봅니다.

00:08:11.396 --> 00:08:13.455  
그런데 이 줄거리에 대해서는

00:08:13.887 --> 00:08:16.511  
사람마다 좀 다른 견해도  
있는 것 같아요.

00:08:16.993 --> 00:08:21.211  
예를 들면 일선 선생님들이  
생각할 때 어떤 서평을 보면

00:08:21.236 --> 00:08:22.362  
줄거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.

00:08:22.387 --> 00:08:25.328  
그래서 줄거리를 너무 많이 쓰면  
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

00:08:25.353 --> 00:08:28.701  
또 줄거리를 써야 하나,  
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
00:08:28.726 --> 00:08:32.629  
그런데 저는 줄거리를 길게 쓰는 건  
문제일 수 있겠지만

00:08:32.654 --> 00:08:35.048  
줄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 
보고 있어요.

00:08:35.073 --> 00:08:36.397  
예를 들면 어떨 때?

00:08:36.422 --> 00:08:38.659  
문학적인 글에서는  
줄거리라는 거죠.

00:08:38.684 --> 00:08:41.717  
동화라든가 소설은 줄거리가  
반드시 들어가줘야 해요.

00:08:41.742 --> 00:08:45.092  
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 
줄거리에 대해서 내 소감을 썼다,

00:08:45.117 --> 00:08:48.617  
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.

00:08:48.642 --> 00:08:53.913  
받아들이는데 줄거리가 없이  
소감만 쪽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?

00:08:53.938 --> 00:08:56.691  
이게 무슨 책에 대해서 썼는지도  
잘 모를 것 같아요.

00:08:56.716 --> 00:08:59.184  
그래서 줄거리는 반드시 들어가면  
좋겠고요.

00:08:59.209 --> 00:09:04.580  
그다음에 줄거리는  
비문학에 있어서는

00:09:04.605 --> 00:09:07.775  
어떤 특정한 책의  
핵심 내용인 것이죠.

00:09:07.919 --> 00:09:11.419  
그 특정한 책의 핵심 메시지나  
내용을 갖다 놓고

00:09:11.444 --> 00:09:13.330  
그다음에 내 소감을 쓰는 것이다.

00:09:13.355 --> 00:09:16.322  
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,  
이렇게 얘기하고요.

00:09:16.347 --> 00:09:21.312  
또 소감 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

00:09:21.337 --> 00:09:25.704

줄거리라는 일종의 꼭 필요한  
재료가 들어가야만

00:09:25.729 --> 00:09:27.552  
비로소 소감이 빛이 난다.

00:09:27.577 --> 00:09:31.758  
그래서 서평요리에는 배경이라는  
정보, 배경이라는 재료,

00:09:31.783 --> 00:09:33.802  
내용이라는 재료, 소감이라는 재료

00:09:33.827 --> 00:09:35.825  
이런 거 가지고 내가  
요리를 하는 과정이다.

00:09:35.850 --> 00:09:37.909  
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.

00:09:39.332 --> 00:09:43.822  
그러면 이 서평요리에 필요한  
재료가 과연 이거뿐인가?

00:09:43.847 --> 00:09:46.284  
이런 얘기를 좀 더  
해 보면 좋겠어요.

00:09:46.813 --> 00:09:50.213  
아까도 얘기했지만  
어떤 아이가 글을 썼는데,

00:09:50.238 --> 00:09:52.693  
서평이나 독후감을 썼는데  
너무 짧아.

00:09:53.361 --> 00:09:56.713  
그런데 노트의 3분의 1 정도를  
소감으로 채웠다.

00:09:56.738 --> 00:09:58.588  
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

00:09:58.973 --> 00:10:02.150  
소감을 가지고 한 페이지  
다 쓰는 것, 성인도 어렵잖아요.

00:10:02.175 --> 00:10:05.104  
그러니까 아이들이 3분의 1 쓴 건  
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.

00:10:05.129 --> 00:10:08.127  
다만 거기에다가 나머지는  
줄거리도 쓰고

00:10:08.152 --> 00:10:10.910  
그다음에 다른 뭔가가  
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

00:10:10.935 --> 00:10:12.636  
다른 뭔가가 무엇일까요?

00:10:12.735 --> 00:10:15.582  
저는 그걸 뉴스라고 얘기해요, 뉴스.

00:10:15.607 --> 00:10:20.153  
그래서 우리가 포인트가  
글의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10:20.178 --> 00:10:21.371  
글의 재료라는 얘기에요.

00:10:21.396 --> 00:10:22.621  
그래서 포인트.

00:10:22.646 --> 00:10:26.371  
그다음에 O는 아웃라인  
내용이고요.

00:10:26.396 --> 00:10:28.861  
그다음에 I는 배경,  
인포메이션이고요.

00:10:28.886 --> 00:10:32.016  
그다음에 T는 소감이었는데  
그 앞에 N이 있잖아요.

00:10:32.041 --> 00:10:33.822  
N은 뉴스다.

00:10:34.604 --> 00:10:38.028  
그래서 우리가 서평을 쓸 때는  
반드시 뉴스를 넣어야 한다.

00:10:38.053 --> 00:10:39.675  
그런데 뉴스가 뭐예요?

00:10:39.700 --> 00:10:47.502  
뉴스는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 
그런 뉴스라는 뜻인데요.

00:10:47.527 --> 00:10:51.193  
말하자면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 
책 속의 뉴스, 이런 거예요.

00:10:51.490 --> 00:10:57.195  
책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,  
흥미로운 장면 또 멋진 글귀

00:10:57.220 --> 00:10:59.784  
이런 것들을 다 뉴스라고 본다.

00:10:59.809 --> 00:11:04.134  
이것은 읽는 사람을 재미있게  
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.

00:11:04.159 --> 00:11:05.999  
또 내가 글을 쓸 때

00:11:06.024 --> 00:11:10.091  
책 전체에 대해서 글을 쓰는  
경우도 있지만

00:11:10.116 --> 00:11:13.497

책에 있는 어떤 유명한,  
재미있는 구절들,

00:11:13.522 --> 00:11:14.732

재미있는 일화들, 이야기

00:11:14.757 --> 00:11:16.537

이런 거 가지고도  
글을 쓸 수 있잖아요.

00:11:16.562 --> 00:11:19.950

그래서 서평을 쓸 때  
책 속에 나와 있는

00:11:19.975 --> 00:11:24.471

그런 재미있는 이야깃거리,  
재미있는 장면, 멋진 글귀

00:11:24.496 --> 00:11:28.623

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 
재미있는 서평이 될 것 같아요.

00:11:28.648 --> 00:11:30.840

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 
뉴스를 찾는 것도

00:11:30.865 --> 00:11:32.944

하나의 재미있는 훈련이에요.

00:11:33.310 --> 00:11:36.071

제가 읽은 책 중에  
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

00:11:36.096 --> 00:11:38.015

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

00:11:38.252 --> 00:11:42.011

유럽 도서관에는 우리 도서관보다  
좀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

00:11:42.036 --> 00:11:47.152

예를 들면 책 밥상이라고 해서  
책상을 밥상처럼 이렇게 꾸며 놓고

00:11:47.177 --> 00:11:48.521

거기에다 책을 놓고 볼 수 있게

00:11:48.546 --> 00:11:51.041

이런 재미있는 그림도  
제가 본 적이 있어요.

00:11:51.066 --> 00:11:54.156

이런 것도 일종의 뉴스라고  
볼 수 있다.

00:11:54.395 --> 00:11:57.723

그러면 동화나 소설에서  
뉴스는 무엇이나?

00:11:57.975 --> 00:12:00.481  
예를 들면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 
어떤 특정 사건

00:12:00.506 --> 00:12:02.257  
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.

00:12:02.599 --> 00:12:05.803  
눈길을 끄는 그림이나 사진  
이런 것도 될 것 같고

00:12:05.828 --> 00:12:09.712  
명문장 이런 것도 뉴스가  
될 수 있다는 거죠.

00:12:09.737 --> 00:12:15.756  
우리가 소설가 이효석 씨의  
메밀꽃 필 무렵 있잖아요.

00:12:15.781 --> 00:12:19.526  
이 메밀꽃 필 무렵은 굉장히  
아름다운 글로 돼 있는데

00:12:19.551 --> 00:12:23.752  
이 중에서 정말 명문장이라고 하는  
그런 대목이 나와요.

00:12:24.835 --> 00:12:27.324  
메밀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 
피어 있는데

00:12:27.349 --> 00:12:32.673  
거기를 주인공이 걸어가는 장면을  
묘사하는 글인데

00:12:32.698 --> 00:12:39.682  
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 
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

00:12:39.707 --> 00:12:42.976  
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.

00:12:43.001 --> 00:12:46.329  
이런 얘기, 정말 멋진  
최고의 문장이잖아요.

00:12:46.354 --> 00:12:52.420  
이러한 얘기를 내가 메밀꽃 필  
무렵의 서평을 쓸 때 넣어주면

00:12:52.872 --> 00:12:55.731  
독자들이 굉장히  
재미있어 할 거 아니에요?

00:12:56.038 --> 00:12:59.112  
그렇게 본다면 서평의 자료는

00:12:59.137 --> 00:13:05.156  
배경과 내용과 뉴스와 소감 따위로  
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.

00:13:05.181 --> 00:13:08.681

그러면 내가 글을 쓸 때  
특정 책의 어떠한 배경.

00:13:08.706 --> 00:13:12.949

이 작가는 누구고 시대 상황은  
어떤 거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소개.

00:13:12.974 --> 00:13:18.004

예를 들면 흥부전 같으면  
마음씨 착한 흥부가

00:13:18.029 --> 00:13:24.539

어떤 불쌍한 제비를 돌봄으로 인해서  
부자가 된 이야기다,

00:13:24.564 --> 00:13:26.160

이렇게 한마디해 주는 거고요.

00:13:26.185 --> 00:13:28.345

즐거리는 좀 더 자세하게  
얘기해 주는 것.

00:13:28.370 --> 00:13:34.020

그다음에 흥부전에 나왔던  
특정 장면을 넣어주는 것.

00:13:34.045 --> 00:13:35.746

그다음에 소감 쓰는 것, 이렇게요.

00:13:35.771 --> 00:13:36.741

예를 들면 보세요.

00:13:36.766 --> 00:13:39.687

흥부전으로 다시 설명하면  
흥부전에서 뉴스거리가

00:13:39.712 --> 00:13:41.046

과연 무엇이 있을까?

00:13:41.071 --> 00:13:45.977

그럼 흥부전에서 가장 극적인  
대목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13:46.002 --> 00:13:49.970

예를 들면 심청전에서 보면  
심봉사가 마지막에 눈 뜨는 장면

00:13:49.995 --> 00:13:55.014

또 인당수에 심청이가 물에 빠지기  
직전의 심정을 표현한 부분,

00:13:55.039 --> 00:13:57.001

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 
좋을 것 같아요.

00:13:57.026 --> 00:14:01.294

마찬가지로 흥부전에서는 제비 다리를  
고쳐주는 장면이 있잖아요.

00:14:01.319 --> 00:14:03.566

제비 다리가 부러져서  
피를 흘리고 있는데

00:14:03.591 --> 00:14:07.485  
홍부가 다가가서 너무 불쌍하다 해서  
치료해 주는 장면 있잖아요.

00:14:07.510 --> 00:14:09.925  
그런 대목을 그대로  
인용해 둔다는 거예요.

00:14:09.950 --> 00:14:12.356  
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몇 페이지  
이렇게 써주면

00:14:12.381 --> 00:14:16.131  
그게 바로 재미있는 어떤  
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죠.

00:14:16.156 --> 00:14:19.563  
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 
소감을 한번 써봐요.

00:14:19.588 --> 00:14:25.161  
홍부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 
가슴이 찡하다.

00:14:25.186 --> 00:14:27.820  
이렇게 썼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?

00:14:28.166 --> 00:14:30.954  
이제는 그 뉴스에 대해서  
소감도 썼잖아요.

00:14:30.979 --> 00:14:32.482  
그러면 어떻게 돼요?

00:14:32.644 --> 00:14:35.825  
홍부전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 
해서 배경 설명해 주고

00:14:35.850 --> 00:14:37.403  
홍부전 줄거리 써주고

00:14:37.428 --> 00:14:40.382  
그다음에 홍부전에 나오는  
한 대목에 대해 써주고

00:14:40.407 --> 00:14:43.298  
그 한 대목에 대해서  
내 느낌을 써주고

00:14:43.323 --> 00:14:45.818  
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해요?

00:14:45.843 --> 00:14:49.766  
내 소감을 써주면 그냥 한 편의  
재미있는 뭐가 돼요?

00:14:49.791 --> 00:14:51.433  
나의 서평이 형성된다.

00:14:51.458 --> 00:14:52.405  
서평의 구조라는 거죠.

00:14:52.430 --> 00:14:56.743  
그런데 이걸 간략한 서평의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.

00:14:56.768 --> 00:14:58.834  
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

00:14:59.136 --> 00:15:02.785  
일단 한 단락씩만 쓴다고 그래도 벌써 네 단락에다가

00:15:02.810 --> 00:15:04.313  
소감이 두 개였잖아요.

00:15:04.338 --> 00:15:08.757  
특정 장면에 대한 뉴스에 대한 소감, 전체 책에 대한 소감이 들어가니까

00:15:08.782 --> 00:15:09.809  
어떻게 돼요?

00:15:09.834 --> 00:15:12.242  
벌써 다섯 단락이 나오잖아요.

00:15:12.953 --> 00:15:16.411  
다섯 단락으로 서평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다섯 단락에다가

00:15:16.436 --> 00:15:19.414  
내 소감을 좀 더 쓰면 여섯 단락이 될 수도 있고

00:15:19.439 --> 00:15:21.150  
일곱 단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.

00:15:21.175 --> 00:15:24.791  
그렇게 되면 한 편의 재미있는 서평이 완성된다,

00:15:24.816 --> 00:15:26.604  
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.

00:15:26.629 --> 00:15:30.116  
우리가 서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.

00:15:30.141 --> 00:15:35.639  
뭐냐 하면 결국 서평을 쓰는 행위는 책을 읽고 재미있는 어떤 것들을

00:15:35.664 --> 00:15:37.663  
우리가 가져오는 행위인데

00:15:37.688 --> 00:15:41.681  
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 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.

00:15:41.706 --> 00:15:46.681  
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서평과 함께  
떼어놓을 수 없는 게 독후 활동이죠.

00:15:47.045 --> 00:15:50.334  
서평 쓰기는 독후 활동에  
너무 중요한 활동이다.

00:15:50.359 --> 00:15:51.862  
책을 읽고 뭔가 행위를 해야만

00:15:51.887 --> 00:15:56.101  
사실 책을 읽은 몇 배의 효과를  
낼 수 있다, 이런 거고요.

00:15:56.126 --> 00:16:00.029  
그래서 독후 활동은 일단  
기본적으로 내가 서평을 쓰거나

00:16:00.054 --> 00:16:01.845  
독후감 쓰는 게 해당이 돼요.

00:16:01.870 --> 00:16:05.498  
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 속의  
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져다 놓고

00:16:05.523 --> 00:16:08.068  
글을 쓰는 것도  
좋은 독후 활동이고요.

00:16:08.093 --> 00:16:11.490  
또 책에 대해서 서로  
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독후 활동이고

00:16:11.515 --> 00:16:14.397  
서로 토론해 보는 것도  
너무나 중요한 활동이고

00:16:14.422 --> 00:16:16.974  
남한테 들려주는 것도  
너무나 좋은 활동이에요.

00:16:16.999 --> 00:16:20.767  
이런 독후 활동을 하게 되면  
책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

00:16:20.792 --> 00:16:22.678  
책 속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.

00:16:22.703 --> 00:16:26.666  
그래서 특히 가장 좋은 것은  
책을 읽고 글을 한 편 지어보는 것,

00:16:26.691 --> 00:16:28.512  
바로 서평 쓰기가 아닌가 싶어요.

00:16:28.537 --> 00:16:32.777  
서평에는 재료가 중요하다,  
이런 얘기를 끝으로 말씀드릴게요.

00:16:33.287 --> 00:16:35.635

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